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3일 화요일 음 1월 15일 (7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낮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9°C, 낮 최고기온은 11-14°C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 for the day and night.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moon phase, and UV index for Jeju.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visibility forecast.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visibility forecast.

월드뉴스

중동 '저항의 축' 가세... 미 보복 확대 조짐

미군 기지 공격 속 전면전 우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이란의 반서방 동맹인 '저항의 축'도 2일(현지시간) 속속 보복에 가세하고 있다.



예멘에서 벌어진 이란 지지 시위에 나타난 '저항의 축' 깃발들.

일단 중동 포화가 사흘째로 접어든 이날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 공습에 가세하면서 이란 지원에 나섰다.

예멘 반군 후티 지도자 압둘말릭 알 후티도 저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스라엘군도 즉각 반격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해 곳곳을 공습하면서 포화가 번지는 양상이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은 이란의 자금, 무기, 훈련 지원을 받는 중동 내 군사 동맹으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다는 목표를 문쳐왔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도 이날 미군을 상대로 한 보복으로 수도 바그다드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은 이란의 자금, 무기, 훈련 지원을 받는 중동 내 군사 동맹으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다는 목표를 문쳐왔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성명을 내고 하메네이를 예도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했고,

다만 최근 몇 년간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타격을 입었고,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1일 진단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데스크칼럼



고 대 로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의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과 문대림·위성근 국회의원 진영은 4월 경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며 본격적인 세 대결에 돌입한 모습이다.

오 지사는 2일 오후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민선 8기 도정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정리한 저서를 선보였다.

민주당 경선, 통합의 장으로 가야 한다

재선 도전을 앞둔 이날 행사는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조직을 점검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었다. 도정 성과를 토대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위성근 의원도 같은 날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의정 활동과 정치 철학을 담은 저서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 경쟁과 비전 제시가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경선은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다. 다만 출판기념회와 포럼 출범이 지지층 결속을 확인하는 행사에 그칠지, 실질적인 정책 논쟁의 장으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내용에 달려 있다.

경선이 다가올수록 요구되는 것은 세 과시가 아니라 책임 있는 메시지와 준비된 역량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과열이다. 인신 공격과 흑색선전, 진영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될 경우 경선은 상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우남 전 의원이 패하자 일부 당원들이 별도의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해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이른바 '해당 행위'가 벌어졌고, 이는 제주 정치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았다.

정당 경선은 승자를 가리는 동시에 패자와 지지자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닮은 구조라면 그 책임은 한층 무겁다. 공정한 룰과 투명한 절차, 정책 중심의 경쟁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열린마당

물처럼 맑은 청렴, 시민신뢰 받는 상하수도 행정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재설계를



김 희 속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행정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되는 수돗물과 깨끗한 하수 처리 과정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순간의 소홀함도 허용되지 않는 필수 공공서비스다.

상하수도 업무는 각종 공사, 시설 관리, 용역 계약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만큼 작은 편의나 관행이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고 기 병 서귀포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30여 년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과제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인 읍·면·동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그 참여의 제도적 틀로 운영돼 온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회다.

리 사무소, 각종 개발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여기에 주민자치회까지 더해지면 기능 중복과 책임 회피, 사업 신청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정밀한 평가다. 주민자치회가 과연 지역 역량을 부합하는지, 기존 위원회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은 없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 지방선거가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이후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생활자치를 제도화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Advertisement for Hanra Electric, featuring a globe and text abou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dvertisement for Samyuk Dairy products, showing various milk and yogurt packaging.

Advertisement for Minseong Jeongmyo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soybean products.

Advertisement for Jeongnam Jeongmyo products, featuring images of soybean fields and product packaging.